세계로 뻗는 템플스테이, 해외 초청 급증

외국인 참가 연 7만 명 돌파… 한국문화원 연계도

4~5개국 홍보행사 협의 비롯
伊 국제슬로푸드대회 참가 등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세계화
2020년 외국인 10만 명 목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한다. 사진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침체기를 보냈지만 템플스테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외국인 참가자가 급증해 연인원 7만 명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3월 7일 기자간담회서 발표한 2017년 템플스테이 지표에 따르면 외국인 참가자는 2016년 대비 27% 늘어난 7만910명(연인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4만6525명, 2016년 5만5787명보다 훨씬 높은 상향 곡선이다. 또한 내국인 참가자는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41만6454명으로 첫 4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문화사업단은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홍보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지난해 미국 뉴욕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실시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체험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외국인 참가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처음엔 종교적 이미지 때문에 거부감을 갖기도 하지만 행사가 끝날 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려줘 고맙다고 인사하다"고 설명했다.

외신과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호응에 따라 문화사업단은 올해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연계 홍보행사를 확대해 2020년까지 외국인 참가자 연인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총 13개국 문화원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행사를 요청해온 상태다. 다만 동시 진행이 어려워 홍콩과 캐나다, 영국 등 4~5개국 한국문화원과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여행박람회서 부스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이탈리아 국제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제슬로푸드대회는 이탈리아 농림부와 피에몬테주, 토리노시가 개최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음식문화축제로 전 세계 100개국 120만 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이 행사에서 문화사업단은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지속적 특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봄 · 가을 여행주간에 맞춰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단 올해부터는 문화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하거나 지역 도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 ·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관련된 홍보 VR영상을 제작하고, 유네스코 · 문화재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문화사업단은 인접 국가인 중화권 대상 템플스테이 여행코스 홍보에도 주력한다. 우선 3월과 4월 대만 · 싱가포르 대상으로 마곡사 · 화엄사 · 석종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사업단은 2016년 마케팅팀을 신설, 여행업계와 연계한 여행상품 7건을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템플스테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역 연계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참가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사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사업단과 일선 사찰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행자 관점의 템플스테이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조를 다져가는 중이다. 일선사찰 운영인력 교육을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문화사업단은 오는 23일 서울 진관사에서 관광종사원과 해설사, 국제포교사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관련 통역교육을 실시한다.

"미투운동, 더 낮은 곳으로 흐르길"

설정 스님, 여가부장관 예방서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문학계, 문화계, 정치계 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보다 낮은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이어지길 기원했다.

설정 스님은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우리사회의 그간 어두웠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등 의지할 데 없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며 "미투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검사지만 더 낮은 민초들의 목소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요즘 미투운동으로 인해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그만큼 충격도 크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종교계서도 응원해주시고, 피해자 지원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장관은 "그간 불교계가 사회정의와 평등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해주셨다. KTX여승무원 복직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석굴암 등 국보 · 보물 원형 기록 추진

문화재청, 120건 대상 정밀 실측 시행

수리 · 복구 · 학술 자료로 활용

국고 · 보물 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과 이를 통한 원형 기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보수 · 정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보 · 보물 지정 문화재 120건에 대한 '2018년 정밀 실측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8년 숭례문(국보 제1호) 화재 이후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밀실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밀실측은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문헌 자료를 일단 수집하고, 인문 · 자연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기초 조사와 수리 이력 등을 파악한 다음, 가설 비계(飛階)를 설치해 수작업과 3차원 입체(이하 3D) 스캔 장비를 이용한 3D 데이터를 얻어내는 작업이다. 또한, 균열 · 박락 · 이끼류 서식 등에 대비한 보존관리 현황을 포함한 도면 작업과 고증연구를 통해 문화재 복원설계도를 작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보 · 보물 지정 목조문화재 총 182건 중 176건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2016년 보물로 승격된 대구 파계사 원통전과 제주 향교 대성전이 이뤄진다. 석조문화재의 원형 기록도 지난 경주 지진 이후 긴급히 진행해 현재까지 276건의 실측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118건의 정밀 실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문화재로는 경주 석굴암을 비롯해 불국화 연화교 및 칠보교, 청운교 및 백운교,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등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까지 국보 · 보물 건조물문화재 755건에 대한 정밀실측 사업을 전부 완료할 것"이라며 "확보한 기록들은 수리와 복구, 학술 ·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한마음선원 제13회 대행장학회 수여식 개최

물질보다 마음을 전하는 의미
대학 · 고등학생 55명 장학금 수여
혜수 스님 "신도님 정성에 감사"



한마음선원은 3월 4일 안양 본원 5층 법당에서 '2018년 제13회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늘의 이 인연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스님께서 일러주신 공생, 공심, 공용, 공체의 이치인 것입니다."

미래 청년 불자들을 키워내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3월 4일 안양 본원 5층 법당에서 '2018년도 제13회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행장학회'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들을 키워 내기 위한 대행선사의 인재 불사에 대한 뜻을 실천하고자 발족한 장학재단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불교 청년회 활동을 활발히 해온 대학생과 고등학생, 경인교육대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대행장학회에서는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한 대행 선사의 뜻을 받들어 발족한 장학회이니만큼 물질적인 도움보다 자신의 역량을 잘 키워 세상의 큰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선물이자 양식을 전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불자에게 수여하는 대행장학생으로 한양대 식품영영학과 2학년 윤다민 학생 등 14명이, 한마음장학생에는 나도희(성균관대 3학년), 변지영(덕성여대 4학년) 등 대학생 13명과 장소연(경인교대 4학년) 등 13명의 경인교대생, 신목고등학교 윤서혜 학생 등 15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한 총 5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 장학금에는 신도님들의 정성이 다 함께 들어가 있다"며 "이렇게 맺은 인연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드린 만큼 학생들이 잘 회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불련, '새학기… 설렘'

16~18일 석종사 템플스테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는 3월 16~18일 충주 석종사에서 대불련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불교문화 체험하고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이후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서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포행, 임시총회, 스님과의 차담, 마음나누기, 지화연꽃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스님의 법문과 함께 대학 신입생들이 불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모집은 3월 14일까지로 참가비는 재학생 3만원, 신입생 2만원이다.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심 증장을 위한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찰에서 불교문화 체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참선수행과 국제포교의 중심사찰

대한불교조계종
三角山華溪寺

화계사 템플스테이 및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식



금번 낙성하게된 화계사 국제 선문화체험관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풍인 선불교를 익혀 실참참수를 통해 생사의 문제에 직면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코자하는 모든 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열악한 공간 사정으로 그동안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 특히 외국인 특화사찰로서 한국불교와 전통사찰의 우수한 가치 등을 숭산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어가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숭산스님의 국내외 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하던 어제를 일소하고, 보다 향상된 여건 속에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소통, 화합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화계사 대중은 이를 내외의 대중 앞에서 다짐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제 선문화체험관 낙성식을 봉행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562(2018)년 3월 17일 토요일 (음 2. 1) 12시
- 장 소 : 화계사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번길 (수유동 487)
- 전 화 : ☎ 02)902-2663